

[종합·해설]

광주시 '유급인턴보좌관제' 동의 후폭풍

의회에 밀리고 시민은 반발... '진퇴양난'

광주시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됐다. 시의회의 막판 밀어붙이기에 밀려 법규에도 없는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동의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추종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은 표현만 다를 뿐, 그동안 광주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온 '지방의원 유급인턴보좌관'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계)으로 상당부분 '경제 살리기'에 관계된 것들이었다. 광주시가 인턴보좌관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들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예산이 깎일 수도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행자부 제재 피할 수 없을 듯

애초 도입을 만류한 행정자치부의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턴제는 사실상 유급보좌관으로 유급보좌관 위법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고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열악한 재정현상상 의회 운영비용의 추가 지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후환 두려워 '굴욕'?

◇시의회에 쏠린 따가운 시선=사실상의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행정자치부, 타 자치단체의 시선은 딱따다.

◇"또 싸울 수 없어서"=5일 오전 간부회의를 끝낸 광주시청의 분위기는 차갑했다. 전날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요구한 1억7천600만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 추가 계상에 동의한 것을 두고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안을 상정해, 광주시에 동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 공개적인 의정단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선 광주시에 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등 인근 지자체에선 "공공보조를 취하기로 했었고 앞서 가면 어떻게 하란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또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회에서 밀어붙여 하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8일 본회의의 예산안 심의에서 '인턴보좌관제'에 따른 예산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한·미동맹 두말하면 잔소리"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뉴라이트와 비공개 회동

국내 뉴라이트 진영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북핵·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행된 조찬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상당 부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종료되기 전에 FTA가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미 FTA의 호혜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등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양측은 '코드회동'이 될 것이라는 예상처럼 이날 오전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1시간40여분간

참석자들이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차기 6자회담의 성과 유무는 북한에 대한 시험일 뿐 아니라 나머지 5개국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다"며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또 우리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확인했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오전 뉴라이트 싱크넷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내년 6월 미 의회가 행정부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자주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핵실험 후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새로운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민주세력 통합 3원칙 제시

"한나라 햇볕정책 동조 호남구에는 잘못"

추미애 전 의원은 5일 민주세력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통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기득권 포기 ▲전국정당화 ▲민주세력의 결집을 제시했다.



그는 또 '통합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정계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통합을 통해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대에서 가진 부산대 10.16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초청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실태와 분당으로 인한 민주세력의 분열, 비생산적인 정치투쟁이 개혁역량을 소진시켰다"면서 "민주세력 통합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며 이렇게 되면 도로 민주당이나 우리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특강에서 "2002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노 대통령은 '호남을 때려서 영남표를 더 얻었다'는 정치공학적인 발상으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바람에 호남에서 외면받고, 영남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씨 4년만에 당 행사 참석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5일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당 행사에 참석했다.



전 총재는 이날도 현 정권 실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 초청 특강 자리였다. 이 전 총재는 그동안 각종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들을 간간히 지원하기는 했지만 당주관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맹현규 이재도 공생진 의원, 양정규 전 의원 등 그의 총재 시절 측근 1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당이 호남에 가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김대중 주의"에 아첨해 호남에서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계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이

이만섭 "신당-친노파 깨끗이 헤어져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오늘 광주 '비전투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5일 신당창당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 갈등 상황과 관련, "우리당은 논란 뜨면 통합신당과, 친노(親盧)파나 싸움질을 하는 데 이제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며 "이전투구에서 삼투투성이 가 되자 말고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신당하는 분들은 깨끗이 (친노세력파) 결별을 해서 빨리 통합을 해야 한다"며 "국민은 완전히 그 분들을 불신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6일 광주를 방문한다. 일자와 주겨, 교육에 이어 복지 부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비전투어'의 일환이다.

김 전 국회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남아서 당을 하고 또 통합

그는 노 대통령의 잇단 정계개편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 발언이 갈수록 광질광질하고 말을 뒤집고 있다. 말로써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계개편, 정치문제에 대해 일일 한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장관을 지낸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광전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전운버스 안에서 지역 복지 전문가 10여명과 '복지 향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Advertisement for 'www.lawbig.co.kr' featuring '재무/입류/주식 해방!!' and '무료설명회 안내'.

Advertisement fo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Hanja/Hanmun Guide Certificate Training Student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Gwangju Kim Jae-gyu Police Academy) with details on enrollment and courses.

Advertisement for '무등고시학원' (Mudeung Gosihakwon)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김영대학원' (Kim Young University)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오창영 논술수학 저자특강 프로그램은?' (Oh Chang-young's Special Lecture Program for Essay and Math).